화가들의 달력 한점 수집해볼까



김종일 작가가 제작한 달력.

광주지역 작가들 속속 제작 참여

조선대 달력, 미대 교수들 참여 단체展 조선대병원 달력 허임석 개인展 광주전통민화협 회원전 출품작 실어 김종일·박구환·주대희 등도 참여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지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덧 한장 남은 올해 달력과 속속 제 작되는 내년도 달력을 보면 새해가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 는시기다.

최근 인쇄되는 달력들을 살펴보면 지역 작가들의 작품 이 담긴 달력들이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 만드는가 하면 기업의 요청이나 소속기관의 달력에 단체로 참가하는 경

이러한 달력들은 매달 한장씩 넘길 때마다 새로운 작품 을 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특별한 리모델링 없이 집 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 작가들의 달력은 구하기 힘들 정도다.

조선대학교는 매년 미술대학 소속 교수들의 작품을 담 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이 분필 대신 붓을 들고 창작열을 불태웠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을 선보이고 있다.

회화, 미술, 시각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의 교 수들이 참여해 탁상용과 벽걸이용 두가지를 제작했다. 탁 상용은 손영미, 김인경, 한선주, 조윤성, 임채형, 김종경, 황영성, 김일태, 양세혁, 노은희, 조규춘, 박순천 교수, 벽 걸이는 김유섭, 박재연, 황종환, 박홍수, 진원장, 조의현, 노은희, 조윤성, 박상호, 김남훈, 서경석, 김익모의 작품을

회화, 조소, 설치미술, 만화 등 각 교수들의 대표작들이 실리며 한장한장 넘길 때마다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조선대 달력이 단체전이라면 조선대학교 병원이 만든 달력은 개인전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화가 허임석씨

의 작품으로 채웠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미술과는 달리 허 작가의 작품은 한국화가 주는 편안함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월 '바람아 불어라' 속 세찬 바람을 맞으며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 두 여자아이의 표정 과 8월 '청풍' 속 선풍기 앞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입을 벌 리고서 있는 남매의 모습은 '풋'하는 웃음이 절로 나온다.

서양화가 박구환씨가 달력 제작에 내놓은 작품도 일 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담기며 편안함이 느껴진다. 박 작가는 지난해 농협 달력에 참여한데 이어 올해는 교과 서 및 학습물 출판업체 '천재교육'의 의뢰를 받았다. 분 홍색 매화꽃이 화폭을 가득 채운 4월달과 자주빛 배경 속 노란 은행나무가 인상적인 10월달의 'In full bloom' 연작은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살려

에뽀끄 창립멤버이자 지역 대표 추상화가인 김종일 전 남대 명예교수가 동문 약국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달력은 추상미술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작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숫자를 일주일씩 배치한 여느 달력과는 달리 세로 길이 약 55cm 지면에 날짜를 세로로 길게 나열한 것이 특징이다. 김 교수는 달력에서 2000년대 이후 선보이고 있는 '순수' 시리즈를 선보인다. '순수' 시리즈는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을 네모난 사각으로 조화시켜 시각적으로 편안하면 서도 화려함을 잃지 않는다.

광주전통민화협회는 지난 11월에 열렸던 회원전 '제4 회 온고지신' 출품작을 달력으로 제작, 배포했다. 성혜숙 회장을 비롯해 서은선, 전미란, 정인숙, 이광자, 오영란, 고재희, 김의정, 박승자, 오아란, 문세정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병아리 가족의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이는 성 회장의 '쌍계도'나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고재희의 '화접 도', 호랑이를 노려보는 까치의 눈매가 매서운 전미란의 '까치와 호랑이' 등이 수록됐다.

이외에도 묵을 재료로 선택했지만 산수화가 아닌 과장 된 표정의 어린이를 소재로 삼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주대 희 작가도 내년 달력을 제작했다.

박구환 작가는 "달력은 전국적으로 배부되며 1년 내내 걸려 있다는 면에서 자연스러운 작품 홍보 효과가 있다" 며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작품을 실은 달 력을 많이 제작했는데 지금은 맥이 끊기며 아쉬운 상황이 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열등과 LED의 빛나는 공존

515갤러리 19일까지 김진석 작가 개인전



도자기라는 소재에 빛을 불어넣어 새로 운 생성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석 작가가 19일까지 515갤 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김작가는 미술관 내부를 도자기로 만든 전등 160점으로 꾸며 몽환적인 분위기의 설치 미술을 보여준다. 그는 전사지를 이 용해 쐐기문자를 도자기 전등에 새겨넣는 독특한 기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품들을 얼핏 보면 일반 백열 등이나 LED 조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겉면은 도자기로 돼있고 공존을 의미하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졌다. 조명 에 표정과 스토리를 담아 두 개의 불빛이 마주보는 방법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김씨는 "백열등 모양의 작품 속에는 LED가 설치돼 있으며 신기술에 밀려난 구시대 유물을 나타낸다"며 "이제는 생산 하지 않는 백열등이나 없어져버린 쐐기문 자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통한 공존을 이 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 정을 졸업한 뒤 일본 도쿄, 후쿠오카, 부 산, 광주 등지에서 5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미술대 전 판화부문 입선,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도자기부문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654-3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예비 큐레이터들 기획전 '신선하네'

조선대 미대 졸업생 18일까지 'Cold Fact…'전

지역 젊은 예비 큐레이터들의 신선한 시 각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문화큐레이 터 전공 졸업생들이 기획한 'Cold Fact-보여지는 것들의 이면'전이 18일까지 조 선대학교 백학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 시는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14명의 재 학생들이 공동 큐레이터가 돼 1년 동안 준 비한 전시다.

'자아와 그림자', '이상과 현실의 경계', '대중매체', '힐링' 등 4개 섹션으로 나뉘 어 현대사회의 차가운 이면과 진실을 새 로운 시각과 안목으로 재해석한다. 학생 들은 주제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작가 20 명을 섭외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에 선정된 하태범, '2014 종근당 예 술지상 올해의 작가'에 뽑힌 박승예, '1회 수림 사진문화상'을 수상한 박현두 등이 참여한다.

전시기획에 참여한 이민주씨는 "전시를 준비하기 앞서 매주 두차례 모여 회의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준비했다"며 "참신하 고 기발한 전시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



박승예 작 'Frankly decent'

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천재교육의 내년도 달력에 실린 박구환 작가의 작품.



한국화가 허임석씨 작품으로 채운 조선대병원 달력

Since 1993 www.jaUtour.com

광주 지점 062) 371-3757 · 할인 항공권 02)3455-0101





호치민 [VN항공] **▶**1/6,10,14,18,22

[관광] 호치민/붕타우 5일 1,149,000부터 [골프]

호치민(54홀) 1,499,000부터 호짬+호치민 VIP(54홀) 1,849,000부터



창립 22주년 기념 사전 예약 특별 할인! •무안 공항 출발



품격(4성) 5일/6일 1,090,000부터 고품격(5성) 5일/6일 1,190,000부터 럭셔리요트(5성) 5일/6일 1,290,000부터

품격(54음) 5월/6월 1,490,000부터 품격(36홀+요트) 5일/6일 1,490,000부터



대만 남부 아리산등정 4g/5g 990,000 pt 대만 남부 컨딩 관광 4위 970,000 대만 일주 화련 관광 5일 1,190,000부터

까오슝 주말 골프(72홀) 4월 1,390,000부터 까오슝 주중 골프(90홈) 5 1,420,000 부터



다낭/호이안+1일자유 5일 899,000 [실속]다낭/호이안/후에 5월 999,000부터 [품격]다낭/호이안/후에 59 1,199,000 HE

다낭 골프(54홀) 5일 1,499,000



[품속]골든트라이앵글 3개국 5=/6= 1,150,000== [고통적]골든트라이앵글 3개국5::/6:: 1,290,000==

[실속]치앙마이 골프 5월/6월 1,490,000부터 [풍격치앙마이 골프 5g/6g 1,650,000 pt [고통레치앙마이 골프 511/611 1,790,000 HE



씨엠립&앙코르왓 4g/5g 1,100,000 #티

[관광+골프] 씨엠립골프(36홀)+앙코르왓 4월/5월 1,450,000

씨엠립골프(54홈)+앙코르왓 4월/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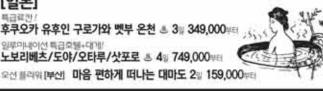
1,550,000 yra

인천

자유투어 HT/오후출범/ PLNFUN한 세부/ 이술라 리조트 3억 5일 399,000부터 보라카이-세미패키지 4월 429,000부터

흡쇼핑HIT \$135특전 하노이/하롱베이+다낭/호이안 5일 449,000부터 수트라하버 마젤란+호핑투어+시내관광+나이트투어 5월 799,000부터 🞀

후쿠오카 유후인 구로가와 벳부 온천 🛎 311 349,000 노보리베츠/도야/오타루/삿포로 8 4월 749,000



실숙/오선뷰록기 관 준특급 홀리데이 자유여행 4월 499,000부터 의장사 특선 호주/시드나+포트스테판 6일 1,290,000부터 용프라우/3대박물관/베르사유/이태리일주

서유럽 6= 12일 2,190,000

발칸 3국 동유럽 2국 9일 1,690,000부터



용요평특별기위 / 중국 속 작은유럽 청도 완전일주 3월 299,000부터 장가계/원가계/천문산/황룡동굴/발마사지 5월 499,000부터

타이베이/야류/화련/지우편+금용천 🛎 4 679,000부터



• 자세만 내용은 자유투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약/상/딤 광주상무점 062)652-2974 전 주 점 063)284-6868 순 천 점 061)741-9922 나 주 점 061)332-7400 목 포 점 061)285-7420 구다동 88번지 등이들당 5층 ●시료사 중구형 등록 일반여행업 제3호로 ●○교로관변등업을 ●달만여행업 경험보충부팅 10억원가업기회에행 실시에 따려 보충보험 5억원 가업기 ●1억등 여행자면에 등의를 받습니다 내에 만도시 고려**이 부당되어 하는 모든경**에 공항으문로, 관광진총개발가공, 운송·수비/식사로급, 가마드경에, 여행자면행로, 현자관람업장로 등 교회/유류활동로 발표함 (단, 자유여행당장면장 시 사진에 여행자에게 등의를 받습니다 내에 만도시 고려**이 부당되어 하는 모든경에** 공항으문로, 관광진총개발가공, 운송·수비/식사로급, 가마드경에, 여행자면행로, 현자관람업장로 등 교회/유류활동로 발표함 (단, 자유여행당동은 이작문되며, 급리한 인상에 따른 유류활동로 발표함 (단, 자유여행당동은 이작문되며, 급리한 인상에 따른 유류활동로 함께 변경하지 않는 것으며, 각국 제자비용 및 고리에 선택에 이한 만난한 왕사로는 선택경에 사랑이며 가사가이드림은 한당사랑된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